

고려대 모의논술 분석 (인문 A)

[신유형 1. 단순조합형]

1. ①과 ②를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관해 논술하시오. (75점)

바뀐 고대 논술의 유형은 우선 제시문을 요약하는 능력이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13, '14학년도에 사라진 요약 문제가 부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요약해 봅시다.

제시문 1 요약

발명가 기술 발명하면 사회가 이를 채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음.

발명품 수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네 가지가 있음.,

- 첫째, 기존 기술과 비교되는 상대적 경제적 이점
- 둘째, 사회적 가치관 및 위신의 문제
- 셋째, 기득권과의 양립 가능성
- 넷째, 기술의 이점을 얼마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의 여부

제시문 2 요약

- 관리들이 절목을 제멋대로 사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는 도구로 삼기에,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이 많음
- 따라서 절목들은 이로움과 해로움을 알아내어 사리에 맞는 것을 표시하여 드러내고 어긋나는 것은 고쳐야 함.

그렇다면 이렇게 요약된 1~6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작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의 고대 논술 문제가 제시문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식이었다면 2015학년도에서는 제시문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과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각 제시문에서 요약된 포인트들을 모두 **접목**시켜야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나 **기득권층의 과도한 이익 추구는 위와 같은 기술의 수용과 제도의 수립을 방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시문 1에서의 '타자 재판기'와 '전기 조명'은 사회를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기술임에도 기득권층의 경제적 이익 생산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다.(3)

마찬가지로 제시문 2에서의 문제상황 역시 제도를 수립하는 기득권이 본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5) 즉, 이기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발전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된 것이다.

(고려대측에서 발표한 모범답안 중 일부 발췌)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단락은 3과 5를 합쳐서 만들어진 단락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2015학년도 고려대 논술의 핵심 키워드는 **'조화'**입니다. 제시문들을 요약한 뒤 어떠한 특정한 과제해결 (이 문제에서는 사회의 발전이 되겠지요) 을 위하여 요약한 부분들을 적절히 배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창의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는데... 걱정 마세요. 이미 여러분이 요약해 놓은 1~6까지의 사항들 중에서 6번이 바로 사회발전을 위한 답입니다. 제시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위 모범답안에서도 그 부분을 찾아 보도록 하죠. 답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전통, 관습이라고 이어져 오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제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 내용은 **6번 문장의 내용을 동의어치환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로움(전통, 관습이라고 이어져 오는 올바르지 못한 사회제도)을 버리고 이로움(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태도)을 취하자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나타난 신유형은 조금 어렵습니다.

고려대 모의논술 분석 (인문 B)

[신유형 2. 비교조합형]

1. ①과 ②를 활용하여 ‘관행과 사회변화’에 관해 논술하시오.(75점)

이번에는 똑 같은 제시문을 가지고 그냥 사회변화가 아닌 ‘관행과 사회변화’에 대해 논술하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관행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것이 될 것이고, 사회변화라고 하면 새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신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AND’입니다. 관행 ‘과’ 사회변화 라는 것이죠. 앞의 단순조합 유형에서는 ‘사회변화’ 한 가지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비교조합 유형에서는 ‘관행’과 ‘사회변화’ 간의 ‘관계’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모범답안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1과 2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제시문 1의 요지 : 사회변화는 관행과 합치되어야 한다 [1]
- 제시문 2의 요지 : 나쁜 관행은 사회변화를 통해 없애야 한다 [2]

[모범 답안 1]

제시문 ①과 ②는 사회변화와 관행의 관계에 대해 다르게 본다. ①에선 사회변화의 요소가 현재 존재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관행과 합치되는 면이 있어야지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1]

그러나 제시문 ②에 따르면, 사회변동은 꼭 기존의 관례와 일치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이익에 맞는 제도들을 만들어 내고, 또 그 전례를 들어 백성들에게 피해가 되는 관행들을 만들어낸 이전 수령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좋지 않은 관행들은 전면적으로 변화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모범 답안 2]

제시문 ①을 통해 생각할 때, 새롭게 수용되어 행해진 사회 변화가 관행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①에서 사회가 새 발명품을 수용할 때 단순히 증가한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신,기득권과의 양립가능성, 그 기술이 주는 이점의 가시성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관행과 사회변화의 양면성과 이들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회변화가 아니라 ②의 필자처럼 현사회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행동하는 개인이다. 이러한 비판적 지성이 깊게 뿌리내려져 있을 때 ②에 나타난 '사사로운 생각에 자기에게만' 이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줄고 '옳은'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다.[2]

총평하자면, 여러분이 2015 고려대 논술에 대해 대비하자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숙지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CHECK POINTS

- 단순히 1과 2를 활용하여 'X' 에 대해 논술하라고 할 경우 특정한 과제해결을 위해 각 제시문을 요약한 것을 적절히 배합하는 '단순조합형' 문제이다.
- 반면 1과 2를 활용하여 'X와 Y' 에 대해 논술하라고 할 경우 '비교조합형' 이므로 두 가지 제시문의 상반관계에 반드시 주목하여 비교한 뒤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야 한다.